

“서로 힘을 합쳐 업계 발전방안 모색해야”



고 광 익 회장
한국LPG가스공업협회

면 저 LPG충전사업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2000년대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사업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찬 2000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백년은 우리에게 슬한 기쁨과 슬픔, 환희와 좌절을 안겨주었으며 특히 LPG업계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LPG가 사용된 이래 그동안 LPG업계는 연평균 두자릿수의 수요증가 등 급성장하였으나 LNG도시가스의 등장으로 한때 수요증가율이 제자리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9년도에 들어 IMF의 위기극복에 따른 경기회복과 RV차량의 급증, 벌크·집단공급의 확대 등으로 국내 LPG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의 LPG수요전망치에 따르면 국내 LPG수요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가 오는 2010년에는 9백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LPG업계의 미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지난해 총회때 협회회장으로 취임한후 벌써 1년이 다돼갑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협회는 업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가지를 예로들면 연초 법개정시 등록제를 도입하려던 정부의 방침을 허가제가 유지되도록 노력했으며 ▲행정처분기준의 완화 ▲LPG충전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 과정 신설 및 경력자에 대한 가산점제 도입 ▲리프트설치 완화 ▲용기재검기한 연장 추진 ▲용기공동관리제와 관련하여 LPG산업 구조개편방안 모색 ▲LPG자동차충전소 지도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올해 협회는 LPG가격자유화에 대비한 방안을 모색하고 ▲에너지원간 가격적정화 ▲LPG정책 세미나 개최 ▲LPG차량규제의 합리화 및 부탄의 가격경쟁력 확보 ▲LPG차량 및 충전소 홍보강화 ▲유통구조개선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협

회의 업무는 그 실적이 수치화돼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나 제도개선등을 통해 충전사업자 여러분들의 사업수행에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므로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이해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LPG산업구조개편과 에너지가격 조정 결과 등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고 2001년에 실시될 LPG가격자유화에 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격자유화는 LNG도시가스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우리 업계의 노력여하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업계의 현실은 LNG도시가스의 보급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는 것은 업계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머리를 맞대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충전업계의 결집력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